



■ 정부, 돌봄교실 지자체 운영 골자 '온종일돌봄 특별법' 추진

전담사 총파업 예고... '돌봄대란' 우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돌봄 민영화 촉발” 주장 교사노조 “파업기간 대체 근무하지 않을 것” 대응

제주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돌봄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사노조 파업기간 대체 근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3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이번 총파업에서 제주 현제까지 전체 돌봄전담사 223명 중 100명이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 223명이 맡고 있는 돌봄 수소는 하루 약

5000명에 달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은 곧 돌봄의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고 공적돌봄을 지켜내기 위해 결사항전의 마음을 먹었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 “교육부와 교육청은 돌봄민영화를 부추기는 지자체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를 위해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파업기간 대체 근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은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에 투입됐다. 이는 오로지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에 따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당국과 일부 학교 관리자들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에게 대체인력 투입의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만약 파업 기간 위법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가 반복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결과는 총파업 전까지 도출될 것”이라며 “각 학교에는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에 대비하라는 정도의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은비기자

감귤 수확철 농촌지역 교통사고 ↑

교통공단제주본부 분석 결과 “65세 이상 보행자 특히 취약”

제주도내 농촌지역의 교통 사망사고가 감귤 수확철인 10~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제주본부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농촌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0~12월 제주에서 총 6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이중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58.1%)으

로 집계돼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 별로는 차 대 사람 18명·차 대 차 13명·차량 단독사고 6명으로 차 대 사람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50%를 차지했다. 특히 차 대 사람 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가 12명으로,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 별로는 일출(6~8시)·일몰(18~20) 시간대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공단은 감귤 수확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늘어나고, 일조시간이 짧아져 시야 불량 등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다혜기자

제주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난 9월 이후 42일만에 서울지역 확진자와 접촉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 60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 소재 한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도 보건환경연구원

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의 방문지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하고, A씨를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상으로 이송·격리 조치했다.

또한 도는 A씨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 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태윤기자

은행·마트서 소란 협박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은행과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고 협박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관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제주시 조천읍 한 은행점포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직원과 고객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일주일 뒤 다시 은행점포를 찾아가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에는 제주시 조천읍 모 마트에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흥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개발사업자측의 환경단체 활동 무마 시도 의혹을 공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송악산 개발 사업자 환경단체 활동 무마 시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어제 녹취록 요약본 공개 회견 업체 대표 “환경연합 제기 금품로비 사실 아니다”

송악산에 대규모 호텔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가 도내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악산 개발사업자가 금품 수수를 미끼로 환경단체의 반대 활동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자신을

제주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A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일 A씨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B씨와 만난 자리에서 “B씨와 도내 타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선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탄’을 줘야할 것 아니냐고 사업자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이 부분이 “우회적으로 금품 로비를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러 A씨는 “환경단체만 도와주면 제주도는 사업자가 알아서 한다는 것 같다”, “사업자 측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강도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2일 환경단체 활동가와 만난 것은 맞지만 제주에도 큰 자본을 유치하고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고 싶은 뜻에 만난 자리였다”며 “송악산 뉴오션타운 사업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하는 금품수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다혜기자

“주호영 대표는 제2공항 숙원사업 발원 사과하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공항 사업을 두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3일 논평을 내고 “제주 도민 의견 수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민 그 누구도 원한 적 없는 제주 제2공항을 숙원 사업으로 포장하며 공황 강행을 적극 폄하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모습에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규탄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남방큰돌고래 사체 발견

제주 해안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항 인근 바위 사이에서 남방큰돌고래 사체로 인해 주변에 악취가 퍼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남방큰돌고래는 길이 약 250cm·폭 60cm, 몸무게 150kg의 수컷으로, 죽은 지 10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사체를 구좌읍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해양보호생물종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조업 중 그물에 걸렸을 경우 해양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강다혜기자

자원순환사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환경문제 인식교육

제주환경 수호신을 찾아라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2020년 11월 7일~12월 13일
(매주 토, 일 오후 4시 ~ 6시 총 12차시)

장소
상명정당문화공간 (제주시 상항로 4)

대상
초등 4, 5, 6학년 선착순 10명

접수기간
2020년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문의 및 접수
이현화 010-4369-3011

주관 : 마블링

후원 : 제주도청 생활환경과

그랜드보청기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마팅 혜택입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보청기 가격의 기쁨을 걷어냈습니다.

세계최초 인공지능 충전식 귓속형 보청기

제주도내 전지역 무료 방문 N/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뽕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와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전액무료

매월최대 400,000 지급
순서: 학원방문 상담 → 고용센터

(내선)전기공사 기능인양성 및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과정

대상 - 모집 조기 마감될수있음
근시일 모집 마감

구직자 / 재직자 / 영세사업자 등
- 7개월(09:00~16:00) 성실하게 수료하고
고용보험 취업가능 하신분
- 일정 소득이상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대기업종사자,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학생 등 제외

교육기간
근시일 개강예정 - 7개월 과정 - 개강일 변경 연장될 수 있음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기능사, 배관배선공사, 약전, 동력설비, 소방설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추천 | 2019년 7월 종료과정 전원취업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el. 749-3434 jejujewon.com